

월간 실적보고

2017.12

▷ 17년 12월 패키지 ASP 약 7% 증가

Summary of 2017 Dec

1.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**22.0%** 성장

- 해외 총 송객인원과 단품 (입장권, Pass 등)을 합산한 수치

2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**23.6% YoY** 증가

- 패키지 **20.0%** / 티켓 **28.4% YOY** 증가

(13.8만명 / 11.1만명)

3. 지역별 송객인원 증감 (YoY)

- 일본 **+42.2%** 동남아 **+30.6%** 유럽 **+16.8%** 미주 **+7.1%** 남태 **+4.7%**

- 중국 **-14.4%**

12월 Review : 해외여행상품 (패키지+티켓+단품) 성장률 22.0%

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성장 23.6%, 송객인원 24.9만명
 패키지 인원 성장률 20.0%, 13.8만명. 전월인 11월에 버금가는 볼륨과 ASP YoY 성장.
 티켓 인원 성장률 28.2%, 11.1만명. 2017년 하반기 중 2번째로 높은 YoY 성장률.

12월 실적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2017	138,306	111,178	249,484
2016	115,303	86,601	201,904
YOY	20.0	28.4	23.6

패키지 YoY : 10월 3.0% → 11월 22.4% → 12월 20.0%

티켓 YoY : 10월 19.7% → 11월 21.4% → 12월 28.4%

총송객 YoY : 10월 9.6% → 11월 22.0% → 12월 23.6%

지역별 성장 (YoY)

일본 42.2% 동남아 30.6% 유럽 16.8% 미주 7.1% 남태평양 4.7% / 중국 제외한 전 지역 ASP 상승

일본 +42.2%, 2017년 12월의 낮은 기저(-10% YoY)와 우호적 환율 그리고 온천여행기간이 겹치며 두 달 연속 전 지역 중 최고 성장률.

동남아 +30.6%, 베트남 다낭 등 신규 여행지의 인기 지속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.

유럽 +16.8%, 전년 동월 높은 기저와 비수기가 겹쳤음에도, 좋은 수요 지속되며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.

미주 +7.1%, 연간 꾸준한 성장을 이번 달에도 이어 나가며 장거리 성장의 한 축으로 기능 지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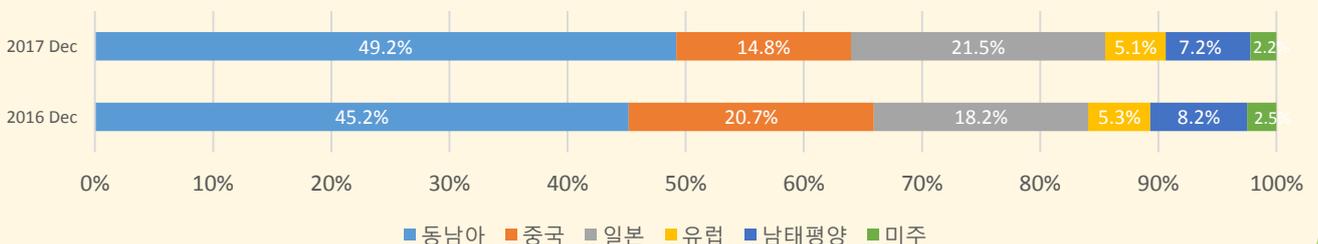
남태평양 +4.7%, 4분기 초 다소 저조했던 실적이 이번 달에 반등하며 연간 지속 성장.

중국 -14.4%, 한중간 긴장 관계 완화의 조짐이 보인 10월 부터 매달 개선세 뚜렷.

(10월 -45% → 11월 -25% → 12월 -14%)

중국 제외한 전 지역 볼륨과 ASP YoY 증가, 지역별 성장률 순위 11월과 동일.

인원 비중



예약률 증감 (PKG)

(단위 : %)

	18년 1월	18년 2월	18년 3월
증감률	26.3	6.4	53.7

* 2017.12.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/ 전년 동일 기준시점까지의 누적 모객 YoY 비교

18년 1월의 예약률은 전년 동일시점의 17년 1월의 증감률 대비 약 18%P 높음, **2017년의 매우 좋았던 여행 수요가 2018년에도 이어지는 우호적 상황.**

18년 2월은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 정부 및 유관 기관들의 인센티브 등의 여행 수요 감소로 인해 다소 느린 예약 상황. 하지만 해당월에 근접할수록 근거리 지역 주도로 예약률 상승 예상.

18년 3월은 전년 동일시점의 17년 3월 예약률이 약 20%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, 매우 좋은 예약상황.

2017년의 좋았던 여행수요는 2018년 1분기에도 견고하게 지속 중. 2017년 1분기의 높은 기저(High Base) 에도 매우 좋은 예약상황 보여주고 있어, **2018년 연간 양호한 성장에 대한 기대 가능.**